

다시 박쥐에 대하여

이타적 유전자

손필영
시인·국민대 교수



첫눈이 소담스럽게 내려 도심의 사람들도 잠시 마음이 환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파병, 경기침체, 정치적 혼란 등으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던 한 해, 그 마지막 달이 되기 전에 눈을 보면서 잠시 동심에 빠져들었다.

필자는 눈이 내리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그 일을 하고 난 후라 더욱 편안하게 내리는 눈을 바라볼 수 있었다.

지난달 21일 아침, 창문 위 모서리에 조그만 박쥐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때 미보다 조금 큰 박쥐가 방충망에 걸려서 못 날아가는 것 같아 툭툭 떨어졌으나 그대로 붙어 있었다.

하루 종일 내리쬐는 따가운 햇빛에 말라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했으나 해 질 녘까지 잘 붙어 있었다. 밤사이 날아가겠지 하고 잠이 들었으나 아침에도 여전히 붙어 있었다.

닷새가 지났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전화를 했다. 내일이면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니 구조해 달라고 간청했다. 오후 늦게 오셨다. 박쥐는 날개를 한 번 퍼더니 순순히 잡혀 상자 안에 넣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이 갑자기 눈 앞에 나타나

당혹감을 느끼고 걱정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곳에 살아야 할 생명체들이 마주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자연에 기반 동물들의 생태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6월 대·자·보 도시 전환을 선언하고 교통정책 방향을 기존의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으로 바꾸어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려 한다. 지금의 환경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이러한 정책 설정은 무척 긍정적이다.

그러나 친환경을 고려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시환경을 변형시키는 정책 자체도 일단 사람 중심인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일을 시행할 때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을까? 환경이라 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생태환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산이나 지역을 개발하기 전에는 환경평가를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생물들을 위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눈에 보이는 발전과 사람의 이해와 편리를 위해 이뤄지는 발전이라는 이름의 개발이 지금의 환경과 생태 위기를 몰고 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작은 생명들의 서식지 파괴나 변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독립운동을 비밀리에 하다가 북경으로 잡혀가 좁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순국한 이육사는 '박쥐'를 소재로 한 '편복'이라는 시를 유고로 남겼다.

(전략)
가연은 박쥐여! 멸망(滅亡)하는 겨레여!
운명(運命)의 제단(祭壇)에 가늘게 타는 향(香) 불마자 꺼졌거든 /
그많은 새증승에 벌뭇칠 애교(愛嬌)라도 가졌단말가?
상글조(相琴鳥)처럼 고흔 뺨을 채롱에 팔지도 못하는 너는 /
한토막 꿈조차 못하고 다시 동굴(洞窟)로 도라가거니 /
가연은 박쥐여! 검은 화석(化石)의 요정(妖精)이여!

일반적으로 "가연은 박쥐여! 멸망(滅亡)하는 겨레여!" 라는 구절 때문에 박쥐를 당시의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가연은 박쥐'와 '멸망하는 겨레'를 동격으로 반복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겨레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가연은 박쥐의 절망감을 드러낸다. 즉, '가연은 박쥐'는 이육사 자신을 의미한다. 시에 나타난 박쥐는 다른 새(두견새, 앵무, 딱따구리)들과 달리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운명을 가졌다. 시의 앞 부분에서 "서러운 주교(呪交)일사 못 외일 고민(苦悶)의 이빨을 갈며/종족(種



강원 인제군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452호 붉은박쥐. 뉴스

族)과 해를 잃어도 갈 곳조차 없는/가연은 박쥐여! 영원(永遠)한 '보헤미안'의 녀이여!"라면서 그는 박쥐를 통해 어둠 속에서 쫓겨 다니는 자신의 운명을 말하고 있다.

동굴에 살아야 할 박쥐가 지금 아파트 창문에 붙어 있다. 앞으로의 세대들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이육사와 이 시를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박쥐는 더 이상 동굴이나 어두운 구멍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생태계가 바뀌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인식 체계는 혼동에 빠진다. 잠시 '박쥐에 대하여'는 김포평야가 현재의 강서구 마곡 지구가 되면서 파괴된 논두렁 구멍에 살고 있던 박쥐를 마주했던 경험에서 썼는데 지금은 이들이 어디로 쫓겨갔는지 모르겠

다. " (전략)조금 있으면 박쥐가 온다네" 서두르시는 선생님을 따라 나선다. 아파트 뒤뜰에서 개발로 들쭉서진 들판을 바라본다. 펠릭펠릭 무언가가 재빠르게 지나간다. 박쥐를 가까이 보기 위해 우린 담뱃으로 나와 섰다. 날아가던 박쥐가 되돌아와 선생님 손을 툭 치고 날아간다. 다시 돌아와서 머리 위를 빙글 돌고 간다.//이야기책 속의 박쥐와 사람을 아는 척하는 박쥐 사이에서 내 머리도 빙글, 다시 한번 박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담과 논둑 사이를 서성인다. 담 안으로 훌쩍 들어가는 선생님 "요즘은 농사도 짓지 않아 벌레도 없고 모기도 날파리도 없는데 기온 빠져서 안되네." (손필영 '박쥐에 대하여')

'전남청사 도민공간 개선사업'을 마치면서

기고

이중호

전남도 청사관리팀장
기술사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지 어느새 20여 년이 되어간다. 2005년 8000여 명이던 남악신도시 인구도 6만여 명을 넘어가고 있다. 중앙공원과 김대중 광장, 수변생태공원과 갈

은 주민을 위한 공간도 곳곳에 생겼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 공연 등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도 청사 공간은 넓은 부지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주민이 그리 많지 않다. 행정업무 공간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면서 도민들의 운선도 홀(1층 로비) 체류 시간은 증가했으나, 도민 편의시설 부족으로 말 그대로 '체류'에 그쳐왔다.

이에 전남도는 노후한 도정홍보관 등 공간을 도민들에게 휴식·정보·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북카페 등 도민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민들의 민원 소통 창구인 '도민행복소통실'을 기존 북향에서 남향으로 이전 배치하고, 기존 '도민행복소통실' 자리를 북카페로 리모델링했다. 아울러 소공연장, 도청갤러리, 디지털 도정홍보관과 도민 맞이방 등 여러 편의시설을 만들었다.

공사 추진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하루 평균 400여 명에 달하는 방문객을 위한 공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이 모였고, 이후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도 의회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건축의 3대 요소인 ①기능(機能 Function), ②구조(構造 Structure), ③미(美 Aesthetics)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기능에 충실 하면서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디자인 측면에서는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다.

"건축은 사람의 생활양식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도청사가 공직자들의 업무를 담는 그릇이었다면, 이제는 도민들의 삶을 담는 그릇, 도민의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공간이 되길 기대

해 본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 청사를 도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 쓸 계획이다. 현재 청사 진출입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차량 723대를 수용할 수 있는 민원인 전용 주차타워를 2026년 6월까지 건립하고 청사 앞 모두누리 광장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신라의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서 패배한 백제의 궁궐(건축물)을 평가한 글귀로 마무리할까 한다.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